

보도

대학회장 ‘생동감’ 더했다
응용 시스템 8월 마무리

UI 기본시스템 개선

권윤지 기자 happitice2@khu.ac.kr

2011년 1차 개정된 대학 휘장 등 UI 기본 시스템이 2차 개정 막바지 작업 중이다. 아울러 1999년 제정된 ‘UI 관리규정’ 역시 UI 기본 시스템이 확정됨에 따라 개정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번에 확정된 기본시스템은 대학휘장과 시그니처에 집중돼 있다. 2011년 1차 개정안을 바탕으로 진행된 개정 작업은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세부적인 부분을 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판문화원 측은 “UI는 대학을 대표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흔하게 쓰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구성원 모두 UI에 대한 관심이 높고, 그만큼 UI를 보다 경희답게 만들고자 하는 의욕도 대단히 높다”며 2차 개정 작업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대학휘장은 햇불과 목련, 사람의 이미지가 보다 자연스러워졌다. 특히 정적인 형태였던 햇불의 변화가 눈에 띈다. 휘장 중심부에 새겨진 영문 문구의 서체도 이탤릭체로 바꿨다.

교명이 붙여지는 시그니처의 경우 기존에는 서체가 이미지로 고정돼, 다양한 활용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작업에서 상용서체를 채택, 단과대학이나 행정부서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두께 역시 볼륨감 있는 것으로 사용해 무게감과 명시성을 높인 점도 눈에 띈다.

5월 안으로 최종 발표 예정인 내용은 전체 UI 시스템 중 ‘기본시스템’이다. 기본시스템을 변형하여 기념품, 서식류 등 각종 물품에 활용하는 ‘응용시스템’은 오는 8월 까지 개발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출판문화원은 오는 2학기까지 ‘UI 전체시스템’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 작업 전에 만들어진 각종 제작물은 재고 소진 시까지 사용한다.

한편 지난 8일 우리신문 인터넷판을 통해 게재된 ‘개편 UI 기본시스템’과 관련해 구성원의 높은 관심이 이어졌다. 특히 ‘재학생’이라는 아이디의 사용자가 여러 질문을 건넸다. 이를 토대로 UI에 대해 구성원이 궁금해할 수 있는 사항을 출판문화원 측에 지난 14일 답을 구해 정리했다.

-지난 2011년 UI가 개편됐던 배경은 무엇인가?
“개교 직후 사용된 우리학교의 전통적인 심벌마크는 세계지도와 월계수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UN마크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때문에 국제적 활동을 고려하여 전면적인 UI 개편이 진행됐다.

-타대학에서는 심벌마크와 시그니처를 엄격히 구분하고 사용규정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으며, 대표컬러를 시스템화하는 것도 일반적이다. 그러나 우리학교는 이런 안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UI 체계의 세부사항을 공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과 시스템이 최종 결정돼야 한다. 그동안 이런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제시하지 못했다. 앞으로 UI의 세부내용을 담고 있는 ‘UI 관리규정’이 최종 승인되고, UI 전체시스템까지 마련되면 홈페이지에 관련내용을 공지하겠다.

-서체 역시 전용서체를 개발해 적용시키는 것이 보편적이다. 하지만 우리학교는 대외 문서와 홍보물 제작에 있어 통일된 서체가 사용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이미지로 고정돼 사용에 제한이 많았던 점을 이번 최종개편과 함께 상용서체로 변경한 만큼 앞으로 지적인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본다. 전용서체를 개발하는 문제는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전용서체 개발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개발 기간도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문서와 관련해서는 응용시스템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통일된 양식도 논의할 계획이다.”

-2011년 1차 UI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학생에서는 과거 UI가 사용되고 있다.

“학생증, 직원증, 명함 등은 응용시스템 개발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응용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학교 홈페이지(<http://www.khu.ac.kr>) 내 ‘경희정신-상징’에 미리 최종안을 업로드해둔 상태다. AI파일과 GIF 두 가지 형태로 다운받을 수 있다.

UI 개편과정

구분	기존	1차안	최종안
휘장(University Seal)	국내외 본교를 공식 대표하는 시각적 상징 요소		 Full Color  One Color
교표(Symbol Mark)	본교의 역사적 전통과 권위를 표상하는 상징 요소		
워드마크(Word Mark)	본교의 이미지를 친근하게 전달하는 요소로, 휘장의 보조적 역할		 KYUNG HEE UNIVERSITY 
캐릭터마크(Character Mark)	본교 교화(목련)와 교수(웃는 사자)를 그래픽화한 것으로, 휘장의 보조적 역할		 KYUNG HEE UNIVERSITY 

대학 휘장 1차안과 최종안 세부비교



구분	변경사항
햇불	선도를 상징하는 햇불의 형태를 정적인 형태에서 동적인 형태로 변경
목련	경희의 교화인 목련의 형상과 더욱 유사한 형태로 변경
사람	인체의 균형에 맞추어 각각의 라인을 자연스럽게 가다듬고, 예술적인 형태로 변경
기타	휘장에 새겨진 글의 서체, 월계수 잎, 책의 형태를 주변 요소들과 더욱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변경

시그니처 1차안과 최종안 세부비교



구분	기존	변경후
국문서체	‘경희대학교’ 서체는 폰트 타입이 아닌 이미지로 해당서체와 동일한 서체로 기타 글자를 작업할수 없는 한계가 있었음	경희대학교 라이선스를 포함한 서체 사용으로 단과대학 및 부서 명에서도 ‘경희대학교’와 동일한 서체 사용 가능
	다소 힘이 없고 모서리가 곡선처리가 되어 있어 주목성이 다소 떨어져 보임	힘과 두께감이 있는 서체로 변경
영문서체		국문 서체 변경 후 고딕계열과 어울리는 명조 계열의 영문 폰트로 변경

미디어센터가 더 다양한 기획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금 미디어센터에서는 신문방송국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기획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슈가 되는 학내 구성원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는 뉴스메이커와 화제의 학내 현장 모습을 담아내는 포토뉴스가 게재되고 있습니다.

기획연재 신청을 기다립니다.
관심있는 필자분은 언제라도 미디어센터에서 연재기획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Tel : 02-961-0094 http://media.khu.ac.kr/
031-201-3231

